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죽림공竹林公 신원伸冤에 일생을 걸었던 갈산공葛山公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파 회장

함을 이겨내고 어느 후손도 할 수 없었던 죽림(竹林, 휘諱 산해山海 단종의 이모부 중부사宗簿寺 첨정僉正, 1403~1456) 귀봉(龜峯, 휘諱 덕린德隣 1529~1573) 공(公)을 배향할 운곡사원雲谷書院, 1785年) 신건(神建)한 4년 후인 정조(正祖) 9년 1789, 300년 12대를 건너편 세월의 무상함을 이겨내고 어느 후손도 할 수 없었던 죽림(竹林, 휘諱 산해山海/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이모부) 선조(先祖)의 신원을 정조 임금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주부(慶州府) 국당(菊洞)에서 한양 길을 10여 차례(8번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나 오르내리고 다섯 차례의 유림(儒林) 상소와 격쟁(擊桴,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을 울려 억울한 사연을 직접 호소)으로 이뤄졌다. 경주부에서 한양길이 열흘이 넘는 여정이니 출잡아 100일 이상 걸렸다. 상소문을 쓰고 유현(儒賢)들의 수결(手決)을 받는 일까지 감안하면 술한 세월과 정성이 들었다. 운곡서원 창건(創建)에서부터 격쟁(擊桴)까지 가슴 속엔 집념(執念)의 불이 늘 켜져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충민공忠愍公의 신원伸冤

충민공(忠愍公, 죽림竹林 휘諱 산해山海, 고종高宗이 내린 시호諡號)의 신원(伸冤)은 12대손 갈산공에 의해 회복됐다. 갈산공은 단종 사회로 인해 화를 입은 충신들이 전왕조(前王祖)에 복권, 증직(贈職)이 되었는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 죽림공(竹林公, 휘 諱 산해山海)만이 누락 된 것을 한(恨)으로 여기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 육조(六曹) 거리에서 열흘 넘게 기다려 궁성 밖에 나온 정조대왕(正祖大王)의 어가행렬을 격쟁(擊桴)으로 막고 자신의 12대조 죽림공의 억울한 사적을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 죽림 선조(先祖)가 복권됐다. 정조는 갈산공의 상소를 어전회의(御前會議)에 올리고 사실확인을 한 즉시 신원(伸冤)이 회복시키고 한편으로는 이조참판(吏曹參判) 증직 교지(敎旨)를 내렸다. 당시 정조가 죽림공에게 내린 교지엔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兼 동지의금부사우도총부부총관(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이었다. 정경부인(貞敬夫人) 교지도 같이 내렸다. 행적은 통훈대부 중부시첨정이었다.

죽림공은 그때서야 금성단(錦城壇)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 6대 임금 단종(端宗) 복위에 생명을 걸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과 한길을 걸었던 죽림, 사정(司正)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인연을 쌓았다.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과는 성(姓)과 가문(家門)이 틀리지만 하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 인연이 됐다.

그해 정조는 죽림공에게 정려(旌闈, 충신 효자 열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 고을 잘 보이는 곳에 붉은 정문을 세우도록 임금이 표창하는 제도)를 내리고 증직하라는 왕명을 같이 내렸다.

갈산공이 교지를 가슴에 품고 예천 용궁 사당에 도착하는 날과 분황(焚黃) 땀 이적(異蹟)이 일어났다. 사당 뜰에서 뿜어 나온 신비스런 빛이 순식간에 예천의 하늘을 한참 동안은 밝게 밝혔. 그 빛의 색깔이 마치 무지개 같기도 하고 하늘 한가운데를 흐르는 별빛의 물결 같기도 해서 놀라지 않는 백성들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이 소식은 영남 고을에 전해져 부녀자들까지 “신성의 충절忠節 정신이 죽지 아니하였다”고들 칭송했으며 백이(伯夷)의 풍모를 지닌 선대(先代)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적(異蹟)은 또 한번 나타났다. 갈산공과 후손들이 정조 임금이 내린 교지를 용궁 피아골 묘소에서 분교(焚告, 임금이 내린 교지를 누른 종이에 뿜어 써서 위하나 묘소 앞에서 고유를 하는 사리를 쓰는 것)를 행한 공간에도 마른 날에 무지개가 뜨는 이적(異蹟)이 일어나 공(公)의 정신을 두고 감읍하지 않는 사대부들이 없었다고 한다.

용궁읍지(龍宮邑誌)에도 “정조 13년(1789) 죽림공 증직(贈職, 吏曹參判) 교지를 무덤 앞에서 분황고유(焚黃告由)할 순간 염송

산 산줄기를 따라 오색 무지개가 길게 뻗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龍宮邑誌> 후인(後人)들은 비가 뿌리지 않았던 마른 날이었지만 어린 조카 단종 임금을 지키지 못한 죽림공의 한(恨)이 염송산 피아골에 내려갔다고들 했다.

정조 임금이 내린 교지 중 다른 한 장은 갈산공 실록 취재 중 공(公)의 7대 봉사손(권진택權鎭宅, 운곡서원 유사有司)이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성록(日省錄)에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죽림공 정충각(旌忠閣)은 갈산공이 돌아가시기 3년 전 순조(純祖) 16년(丙子 1816) 기호(畿湖, 경기도와 황해도 남부 및 충청남도 북부지역)지방과 영남의 선비 송문기(宋文箕) 등 2천여 명의 유림이 다시 상소(上疏)를 올려 사육신과 같이 숭보(崇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議政府) 논의에서 “심이저(沈履之, 조선후기 문신)와 이재간(李在簡, 조선후기 문신 이조 형조 예조 판서와 대사헌을 지냄) 이곤(李坤, 연성군)과 영의정이었던 변암 채제공(蔡濟恭)이 나서 “죽림공의 행적은 사육신과 같으니 관작을 추증, 백세(百世)에 걸쳐 풍교(風敎, 가르침)를 세우는 것이 옳겠다”고 주정했다.

또 단종을 위해 입건(立薦, 의로운 죽음)한 여러 신하에게 단소(壇所, 제단)를 쌓고 숭보(崇報, 은덕을 감응)하는 날을 맞아도 지나친 바가 없다고 주청하니 상께서允許(允許)하고 추증 관직과 정표(旌表)를 내려 이르기를 “정충각(旌忠閣)”이라 했다.

정충각(旌忠閣)은 증직 3년 후 이조판서(吏曹判書) 홍양호(洪良浩)의 주관으로 대죽리 고향마을 어귀에 세워졌고 판윤(判尹) 이현경(李獻慶)이 “죽림열사전(竹林烈士傳)을 지었다. 상량문(上樑文)은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 묵만중(睦萬中)이 짓고 글씨는 명필(名筆)이자 문신(文臣)이신 이조판서 홍양호(洪良浩) 공이 직접 썼다. 신도비(神道碑) 비문(碑文)은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이신 진성인(眞城人) 이한응(李漢膺)이 1852년에 지었다.

크게 아쉬운 것은 갈산공이 다섯 차례에 걸쳐 올린 상소문이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 그 유소(儒謠)엔 죽림공의 알려지지 않은 행장, 시대상을 나타낸 명문장이 들어있었다.

죽림공은 경주 운곡서원과 예천 노봉서원(魯峰書院)에서 배향(配享)되고 있다. 2004년 5월 신도비와 정충각은 후손들의 집성촌인 노봉서원 못미처 소나무 숲 아늑한 곳으로 옮겨졌다.

특히 갈산공이 평생을 두고 염원했었던 죽림공의 신원(伸冤)은 조선 500년 역사상 보기 드물게 두 번 가증이 내렸다. 갈산공 사후(死後) 65년만인 고종이 내린 시호(諡號)는 충민공(忠愍公)이다. 조선 후기 재위 21년(1884년)이 되던 해 고종은 공을 이조판서로 추증, 충민(忠愍)이란 시호(諡號: 성현이 죽은 뒤 생전의 흔적과 공적을 칭송, 임금이 내리는 칭호)를 내리고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증했다.

당시 고종이 선왕(先王) 대에 증직이 된 죽림공에게 이조판서 추가 가증(加贈)은 일본과 러시아 세력에 빌붙어 자리를 탐하고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된 의정부의 부패 관료들에게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의 이모부로 성품이 강직하고 의(義)와 효(孝)를 중히 여긴 당대의 문신(文臣)”상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었다.

당시 고종은 정(貞)부인에게 죽림공에게 내린 판서(判書)와 같은 품계를 두 번 내릴 수 없다 해서 판서보다 한 단계가 높은 정경부인(貞敬夫人) 교지를 내렸다.

운곡서원 유연정悠然亭 은행나무와 갈산공

넓은 터 용추를 벗 삼은 곳에 심어진 압각수(鴨脚樹, 경주시 보호수) 한그루는 2백50년 풍상(風霜)을 이기고 오늘도 푸르름을 뽐낸다. 운곡서원을 떠받드는 유연정(悠然亭)을 벗 삼은 수령 250년의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는 갈산공(휘諱 권종락權宗洛)과 얽힌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단종 사회로 죽은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고 증직이 되었는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만 누락 된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한양으로 올라가 궁 밖에 나온 정조대왕의 어가(御駕)를 격쟁으로 가로막고 앞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 충민공(忠愍公, 죽림竹林)은 갈산공의 목숨을 건 격쟁으로 신원이 되고 이조참판으로 증직, 순흥(順興) 금성단(錦城壇)에 이름을 올렸다.

갈산공은 한양에서 교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영주(榮州) 순흥(順興) 금성대군(錦城大君) 신단(神壇, 사적 491호)에 들

러 고유(告由)를 하고 한자 남짓하게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잘라 행랑에 넣고 고향길을 재촉하였다.

경주 길이 4백리. 예천 염송산 피아골 죽림공 묘소에 들러 신원 사실을 고유를 하다 보니 한 달이 넘어 경주부(慶州府) 운곡서원에 도착하였다.

갈산공은 용추 언덕 자리에 심기 위해 걸껍질이 말라버린 압각수를 행장에서 꺼내었을 때 친족들이 “은행나무가 살아 날리 없다”고 말하자 공은 큰소리로 “죽림 선조의 충절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심었는데 다음 해 봄 공이 예언한 것처럼 기적 같은 새움이 나와 250년이 넘는 풍상(風霜)을 안고 노거수로 자랐다.

이 은행나무의 어머니가 되는 영주 순흥의 금성단 은행나무도 특별한 사연을 지닌다. 단종 1년(1452) 말정하던 은행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갔다. 당시 순흥에서 가장 옹하다는 점쟁이가 말하길 “순흥은 곧 폐향이 될 것이다. 이 은행나무가 살아나면 순흥이 복향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었다. 점쟁이의 말처럼 단종복위운동을 벌였던 금성대군도, 대군을 따랐던 사람들이 몰 죽임을 당하고 순흥부(順興府)는 폐향되었다.

240년이 지나 단종에게 왕호(王號)가 복원(復元)되고 사육신에게도 복권 교지가 내려지면 날 순흥부(順興府)도 복향이 됐다. 점쟁이의 말처럼 은행나무(수령 1200년 추정)도 기적같이 살아나 금새 큰 숲을 이루었다. 지금도 순흥은 맑고 차가운 정신이 드는 곳이다. 이 전설을 갈산공이 용추(龍湫)로 연결시켰다.

2006년 은행나무와 마주 보는 곳에 기적비(紀績碑)를 세웠다. 비문은 봉화 송석현(松石軒)의 주인이시자 이 시대의 마지막 자이신 권헌조(權憲組, 34世 작고) 공이 짓고 월성인(月城人) 손장호(孫璋鎬)씨가 썼다.

충민(忠愍,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공은 타고난 인품과 몸가짐이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의 성취도가 빨랐다. 세종 때 좌의정이었던 종조부(從祖父)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軫) 문하에서 수학할 시기 「백이전(伯夷傳)」을 세 번을 반복해서 읽고 크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백이伯夷」이라야 만세에 강상(綱常)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종조부(從祖父) 문경공(文景公)이 기특하게 생각하시었다.

이 일로 단종 사회를 피하기 위해 세종 재위 시 좌의정이시었던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軫) 후손들 역시 한양에서 살지 못하고 김천(金泉) 원주(原州) 치악산 영양 등지로 흩어져 살게 됐다.

죽림공은 종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과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취급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과 특히 친하게 지내셨으며 벼슬길을 멀리하고 절의(節義)를 가슴에 새겼다. 학문적 명성이 영남을 넘어 한양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관례(冠禮)에 앞서 부정공파(副正公派)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의 사위가 되었다. 세종 13년 신해년(1431) 화산부원군의 셋째 딸(손임順任)이 세자빈(世子嬪)에 간택(揀擇), 문종(文宗)이 왕위에 오르니 헌덕왕후(顯德王后)으로 책봉됐다.

이로부터 문종(文宗)의 손윗동서가 됐다.

죽림 선조는 세자빈(世子嬪)에 오른 시기부터 과거에 나가는 것을 폐하고 학문을 닦는데 열중하였다. 세종 22년 경신년(1440)에는 38세로서 녹사(錄事)와 주부(主簿) 벼슬이 제수(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문종(文宗)이 왕위(1450)에 오르고 임신년(1452)에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및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등이 유조(遺詔)를 받들어 이질(姪嬪)인 단종을 도와야 할 시기에도 출사(出仕)를 사양하고 재야(在野)에 있었다.

단종 재위 2년 갑술년(1454)에 가서야 중부시첨정(宗簿寺僉正, 종사품從四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단종이 처한 위기를 직접 보고 느꼈던 죽림공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교지를 받으니 이때가 52세.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 명신이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숨을 거둔 암울한 시기였다. 공은 선왕(先王: 세종과 문종)에 갇지 못한 은혜를 어린 단종 임금에게 갚겠다면서 출사를 결심했었다고 한다.

집현전 삼학사(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와 날마다 긴밀하게 만났으나 뜻을 이루시지 못했다. 이듬해 단종이 수양대군의 세력에 밀려 순위(遜位: 임금의 자리를 내놓음),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고 왕위에 오른 세조(世祖)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를 이배(移排)시키고 죽림공에게는 찰방(察訪)직을 내렸으나 이를 받지 않고 고향 예천 대죽리로 내려오셔서서는 두문불출(杜門不出)로 복침읍음(伏枕悵悵)의 세월을 보내었다.

세조 2년(1456)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됐다. 사육신과 금성대군에게 환관이 다치자 죽림공은 “하늘이 돕지 않는구나. 살아서 사직을 광구(匡救, 바로잡음)하지 못할 바에야 내 홀로 살아서 무엇을 하리오. 죽어서 선왕(先王)께 보은(報恩)이나 하겠다.”는 절명시(絶命詩) 같은 탄음을 뒤로하고 문종이 내린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누대에 올라 복향 사배(四拜) 후 뛰어내려 생을 마쳤다. 이때가 54세.

아~~~죽림 선조는 선왕(문종)에 대한 태산 같은 마음도, 단종에 대한 그리움 한 줄 전하지 못하고 생을 놓으셨다. 세조가 보낸 차사(差使)가 예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을 거둔 뒤였다.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서재(書齋)에 두었던 서지(書誌, 책이나 문서, 사실을 책처럼 기록해 둔 것)와 서간문(書簡文)을 불살라버려서 관작이 삭탈되는 것으로 화(禍)를 피했다.

적가문서(敵家文書)를 없앴다. 조선의 임금들이 연루자를 찾기 위해서 가장 잘 썼던 방법이다. 금부도사(禁府都事)는 역적으로 지목된 죄인의 집에 들어서는 즉시 서재(書齋)를 뒤져 죄인이 주고받은 서간문(書簡文)을 거둬 임금에게 아뢰면 다시 추국청(推鞠廳)이 열려 이름이 나온 선비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된다.

정경부인(貞敬夫人)의 기지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죽림공의 아우이신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은 고애(孤哀, 아버지를 잃은 자식)와 함께 공의 시신을 거두어 축성(竺城, 용궁면과 지보면의 옛 지명) 염송산 산하리 좌좌(西坐,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는 자리)에 묘를 쓰고 초종(初終, 장례의식)을 끝내는 날 넷째 조카(휘諱 철손哲孫)를 입고 경상도 연일(延日) 대작산(大岾山)으로 향하는 유배 길에 올랐다.

사정공(司正公) 또한 해배(解配)가 되고서도 100년 금고형에 묶여 경상도 연일 땅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후손들이 관직에 나가는 길이 막혔다. 죽림, 사정 후손들은 물론 죽림공에게 글을 가르친 종보부(從祖父)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軫, 세종 때 좌의정)과 일곱형제들의 자손마저 정든 땅에서 살지 못하고 김천, 영양, 강원도 원주와 고성 등에 흩어져 생명을 건사하기에 급급했다.

충민공과 정경부인 사이엔 4남(철조哲祖, 철종哲宗, 철명哲命, 철손哲孫)과 현감(縣監) 정난원(鄭蘭元)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으나 철조(哲祖), 철종(哲宗)은 후사가 없었다. 셋째 아들 별제공(휘諱 철명哲命)은 예전에서 정경부인인, 넷째 판관공(휘諱 철손哲孫)은 경상도 연일로 유배 길에 오른 사정공이 거두었다. 당시 남아(男兒)는 모두 죽이고 여아(女兒)는 관비(官婢)로 삼는 세조(世祖, 수양대군)의 독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 형제를 갈라놓았다.

충민공(죽림竹林 휘諱 산해山海) 묘소는 예천 용궁리 염송산 절동 선영에 묘향(정동을 중심으로 15도 좁 기울어진 자리)으로 써졌다. 충민공 묘소 아래쪽에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무덤이 지금도 주인을 지키고 있다. 공의 조부(祖父 휘諱 초軫, 고려판사高麗判事, 조선성균관대사성朝鮮成均館大司成 합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부친(父親, 휘諱 권寬조산대부朝獻大夫) 경력공(經歷公)이 가까이 했었던 벼루 붓 등 문방사우(文房四友)와 불에 타다 남은 서책(書冊) 무덤이기도 하다.

특히 죽림 선조의 묘소 앞에 세워진 비석은 3개다. 그중 가장 오래된 묘비는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새겨진 화강암 비석이다. 이 고비(古碑)는 먼 세월을 건너 단종이 왕호를 회복하자 후손들이 새 비(碑)를 세운 후 허리가 잘려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은 귀중한 문화재로 대접받는 역사의 산증인이 됐다. 수갈(堅鑿) 사유 역시 기구하다. 예천 염송산, 지금의 지보면 피아골에 켜진 죽림공 묘소엔 세조가 죽은 이후에도 묘비를 세울 수 없었다.

왕조가 15번이나 바뀐 긴긴 세월이 흘러 정조 8년갑진1784에 처음으로 경위(經緯)를 밝힌 글이 제술(製述)되었으나 비(碑)를 세우지는 못했으며 그로부터 6년이 더 흘러 기유년(1789) 정조의 행차 길에 갈산공(휘諱 종락宗洛)의 격쟁으로 옛 관작이 복원되고 증직이 이루어진 후애야 수갈(堅鑿)이 됐다. 이 묘비가 노산군으로 음각된 그 비(碑)다.

<자료출처: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 예천군사體泉郡史, 좌윤공파신축보佐尹公派辛丑譜>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28차 격월제 7월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숙동) 제28차 격월제 7월회의가 7월 25일 오후 6시 안동시 평화9길 46-13에 위치하고 있는 ‘한정식 청운’에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세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전 부회장공파회장, 권정호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사무국장 등 10명이다. 권숙동 친목회 회장과 권세목 전 북아공파회장, 권준근 시중공파회장 등 3명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권영택 회장은 건강이 회복되어 오랜만에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모두들 박수로 환영하였다. 권기수 회장은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의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는 바람에 소를 비롯하여 우사, 사료, 농기계 등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 심정 고통이 많았으나 현재는 현대식 우사와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장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친목회 모임은 격월제(隔月制)로 홀수 달 넷째

금요일을 정일(定日)로 정해 놓았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식으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제주 응서공파종친회 시조 묘소 참배

제주 응서공파종친회(회장 권오택) 회원 30여명은 지난 7월 20일(일) 조복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시경 권오연 총무의 인솔하에 제주를 출발하여 10시 대구공항에 내려 전세 관광버스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제사에 도착 대중회 안동사무소 권오의 국장의 안내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남종공 단소를 참배 후 묘역에 핀 망초와 잡초를 깨끗이 제거하고 능동제사를 둘러보고 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시조님의 유덕을 기렸다.

능동제사는 현재 봉당과 동서재 및 공반재, 주사는 보수가 모두 끝나고 약간 기울어진 추원루 보수만 남아 지난날 문화재청의 심사를 끝내고 설계 중인 상태이다.

추밀공파인 응서공(27世) 후손들은 제주에 많이 살고 있으며, 당초 19일로 참배계획을 잡았으나 폭우로 인해 하루 연기하여 이날 참배를 하고 대구로 가서 서문시장을 둘러보고 오후 6시 비행기로 제주로 향하였다. 권오의 안동사무국장

